第七千二百五十四號 第三種郵便物認可 1925. 12. 21 許可番號第二十五號 1946. 6. 18 (木曜日) 조선일보 THE CHOSUN ILBO 檀紀四千二百七十九年一月十六日 【日刊】

朝鮮日報

購讀料 一個月 六十圓

社說 民族의 渴望은 무엇이엇는가

一

國內、國外의 全朝鮮民衆이 解放後 오늘까지 渴望해 온것은 무엇이냐 오직 自由獨立國家의 建設이엇다 政府를 樹立하여 國內的으로 自治、自主하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갈것과 對外的으로도 自主、主權을 發揚할수 잇도록 될것뿐이엇다 勿論 建國은 大業이다 더구나 倭敵三十六年의 彈壓과 搾取下에 모든 形態가 不具者的으로 된 畸型的 發展을 해왓든 그것이 우리의 建國을 더 困難케 할것도 생각할수 잇엇으나 解放後 美蘇가 南北으로 分割占領하게된 事態와 兩者의 國際政局上의 對立이 또한 우리 建國途上에 波瀾을 그릴것도 생각할수 잇엇다 그러나 비록 託治라는 內容을 包含한 國際管理의 條項을 內包한것이기는 하지만 莫府決定에 依한 美蘇共同委員會가 聯合國憲章에 據하여 우리 臨時政府樹立을 目標로 開會를 보게 되엿을때 우리는 이에 多大한 期待를 가젓엇다 그러나 委員會는 無期停會를 보게되면서도 그 責任은 美蘇어느便도 없는것으로만 되엿고 政治的經濟的 混亂은 날로 深刻하여지고 民生은 그야말로 塗炭中의 魚肉이대로 窮地에 빠지고 民心은 絶望的인 不安과 動搖를 深化할뿐 建設의 氣脈은 보이지 않엇다 앞으로 民生問題는 더욱 困難할것만가대 보이고 잇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希望을 가질수 없는것이엇든가。

二

贊託反託 左와右의 對立 南과北의 雜音等等의 政治的混亂에서 또 南朝鮮의 廣汎深刻한 非常事態의 惹起 그러고 暗澹한 民生問題 食糧難等의 모든 困難가운데서도 民衆은 그래도 政府樹立의 機會를 熟望하여 왓다 卽 美蘇의 協調 諒解의 成熟을 渴望햇다 共同委員會再開의 氣運이 到來키를 鶴首苦待햇다 그는 오직 우리의 南北統一政府의 樹立에서 三千萬의 眞正한 統一的 民主的 意思表示가 唯一한 힘이 되여 우리의 모든 問題를 全體的으로 綜合的으로 解決 建設、是正해질것만을 크게 밋기때문이엇다 여기에 民族的、歷史的 希望이 그 과 意慾이 잇는것이다 그러나 希望이 不透明한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더 不安混亂이 잇엇다고 하겟으나 이 希望이 뚜렷하게 前途를 보여준다면 우리는 더 큰 困難이 잇다해도 좀더 自信잇는 意氣와 抱負를 가지고 이겨나갈수 잇을것을 미들수 잇다 이는 民族의 矜持이다 그때문에 左右合作運動에도 큰 期待를 가젓고 美蘇間의 書翰往來며 一片의 外電에도 朝鮮에 關하는 限 至大한 關心을 가저왓다 지금 우리는 오늘 이자리에서도 朝鮮의 全民衆은 塗炭中에 氣盡脈盡한 듯하면서도 우리 臨時政府가 하로바삐 樹立될 것만을 鶴望하고 이에 最大의 希望을 걸고 잇다 曲折은 如何한 國家建設에 關하는 限 民族과 歷史의 名譽로써 우리는 希望을 버릴수 없는것이다。

三

그러면 우리는 어떤 國家 어떤 政府가 樹立될것을 希望하며 또 豫測할수 잇엇든가 우리 國土와 民族과 그리고 歷史를 土臺로 하야 國際平和의 命題인 民主政府下에 自國의 繁榮을 自主的으로 擁護發展시킬것을 企圖하는 同時에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 國際平和建設에 寄與할 國家가 될것은 우리 自身의 意圖인 同時에 오늘 第二次大戰終結에 依한 解放民族이 當然히 가저야할 國際的인 建國課題일것이다 그는 또한 우리 解放과 建國의 國際政治上의 方向이 美蘇를 中心으로한 國際關係에서 더옥 그러함을 우리는 現實에서 보고 잇는것이다 卽 오늘의 朝鮮問題는 우리民族自身의 問題인 同時에 世界平和建設의 難解의 課題인 美蘇問題인것은 더말할것없다 朝鮮占領에 對한 美國의 政策이 朝鮮그것만을 對象으로한것이라기보다는 極東에잇어서의 對蘇政策의 그것으로 나타나고 잇다고 볼수잇음은 蘇聯의 朝鮮占領政策이 對美政策에 더 置重되엿을것이나 마찬가지일것이다 卽 三八線을 境界로한 占領事實에서 부터 그는 것은 說明될 것은 아니겟는가 여기에 우리의 苦悶이 잇음은 勿論이려니와 美蘇兩國의 지금까지의 全的 和協의 態度를 보이고 莫府決定이란것을 美蘇가 主되여 作成하고도 模策懷疑가운데서 우리政府의 樹立을 還延하는 가잇는것이 곳 여기에 理由가 잇을것이 아닌가 우리 政府樹立을 곳까지 渴望하는 主意慾치않을수없는 우리는 莫府決定內容의 文的解釋에서나 運營의 技術的方面에서보다 그 實踐에 잇어서 크게 政治的飛躍이 잇기를 美蘇兩當局에 바라지않을수없는 同時에 우리로서도 莫府決定內容의 實踐을 中心으로한 美蘇에 對하야 自主性을 堅持한 高度의 政治的外交的彈力잇는 手法을 恒常考慮하여야할것은 오는 朝鮮의 國際的現實이 다할것이다。解放과 國家光復의 事業의 經綸은 實로 當面해서는 三千萬民族의 問題요 進하면 前途에 잇어서는 百代千孫 民族歷史의 問題인것이다。

世界서 戰爭을 없애는 平和計畫을 樹立하자
英「베빈」外相開會辭
獨墺問題處理할 四相代理會議서

【倫敦十五日UP發朝通】「베빈」外相은 十四日 四大國外相代理會議開會式에서 獨逸과 墺地利에 對한 媾和目的을 다음과 같이 强調하여 演說하였다。

우리는 獨逸의 軍事的再勃興을 防止하는 條約을 作成하고 今後數百年間 世界에서 戰爭을 없애는 平和計畫을 樹立하여야 할것이다 墺地利에 對한 條約은 그의 他國에 對한 關係에 있어서 經濟的으로 그를 困難케 하여서는 아니될것이다 英國은 東歐의 平和確立前提條件으로「다뉴부」河의 國際化를 要求할것이다。平和는 瞬間에 오는것이 아니다 今次의 準備工作은 効果的이기를 希望한다 聯合國은 歐洲平和와 土壤의 하나로서「다뉴부」河盆地가 經濟的으로 政治的으로 健實히 發展하여야할것을 認識하고 있다

四國外相代理會議開幕

【倫敦十五日UP發朝通】四大國外相代理는 十四日當地에서 오는 三月莫府에서 開催되는 四相會議에 앞서 對獨逸及墺地利講和條約에 關한 豫備會談을 開始하였다 第一次會議는 新聞과 一般에 公開치않었으며 二時間半 繼續되였는데 其間蘇聯外相代理「페오도르·구세프」氏는 獨逸과 墺地利에 對한 條約을 同時에 討議하는데 關하여 西方諸國代表와 衝突하였다「구세프」氏는 獨逸에 對한 條約案이 作成될때까지 墺地利에 對한 條約審議를 延期할것을 主張하였다 四相代理는 十五日에는 對獨講和條約作成에 關한 節次問題를 討議하고 十六日에는 對墺地利講和條約作成에 關한 節次問題를 討議하는데 同意하였다 外相代理는 何等拘束的決定은 하지 않을것이며 그들이 作成한 條約案은 三月十六日 莫府에서 開催되는 四相會議에 提出하여 最後承認을 받어 再記錄될것이다 外相代理는 約一個月以內로 그들의 任務를 끝내일 豫定이다

英佛兩巨頭會議

【倫敦十五日發AFP合同】佛首相「부룸」氏는 英首相「애트리」氏及同外相「베빈」氏와 會談코저 昨十四日倫敦에 到着하엿는데 兩巨頭會談目的은 (一)英佛關係 (二)石炭問題를 前提로하고잇는 對獨問題等이 重要한것이라한다 그러나 兩氏의 第一次會談은「애트리」首相의 用務關係로 約二十五分間에 끝낫고「애트리」英首相은 佛首相「부룸」氏에 對하여「베빈」外相과 詳細한 條項에 關하여 協議하여 달라고 懇請하엿다 한다

對中策討議建議
「밴든벅」氏「마」氏招請

【華盛頓十五日AFP合同】美上院外交問題委員長「아자·밴든벅」氏는 十五日國務長官「마-샬」氏를 同委員會에 招請하여 對中美國政策의 討議를 建議하엿다하는데 氏는 다음과같이 말하엿다 우리는「마-샬」將軍에게 執務準備에 充分한 時間을 提供할作定이다 그러나 將軍이 莫府로 出發하기前에 中國政策에 關한 明白한 聲明이 잇기를 바란다

「스」島共同防禦案
蘇、諾兩國閣合議

【倫敦十五日發AP合同】莫府放送은「스피쓰바-겐」諸島에 關하야 蘇、諾兩國間에 合議를 보앗다고 다음과 같이 放送하엿다 蘇、諾兩國은「스피쓰바-겐」諸島共同防禦에 對하야 合議를 보앗다「스」諸島共同防禦에 對한 蘇側交涉은 一九四四年과 四五兩年에 亘하야 進行되엿든것이며 紐育에서 開催되엿든 UN總會에서 蘇外相「모로토프」氏와 諾外相「랑가-」民間에 再次同問題에 關한 意見交換이 잇엇든것이다

英緬會談開始!

【倫敦十五日發로이타合同】英外務省에서는 十四日下午緬甸將來에 關하야「애트리」首相主宰下에 第一回正式會議를 開會하엿다는데 同會議에 參席한 英側代表者中에는 印度緬甸相「페식·로-렌스」卿과 同氏와 內閣使節團으로 印度에 隨行하엿든「스태퍼드·크리프스」卿「A·V·아레크산더」氏等諸氏도 包含되여잇다 한편 緬甸側代表者는 六名中現在「倫敦」에 到着하여잇는 五名이 參席하엿는데 同會議는 非公式的으로 進行되엿다 한다

美蘇共委交換書翰 各政黨見解
反託派言權剝奪은 民主槪念矛盾
韓獨黨聲明

韓國獨立黨에서는 十四日出入記者團에게 去年十二月二十四日付로 蘇聯代表에 誤謬한「하-지」中將의 答翰에 關하여 國內外各界에 向하여 다음과같은 聲明을 한다고하엿다

一、信託統治云云은 韓國民族代表의 參加나 民族總意의 表示를 基礎로한 데서 發生된 問題가 아닌것

一、韓國은 (1)委任統治를 받은일이 없고 (2)韓國國土는 法的及史的으로 日本의 領土가 아니며 (3)韓國은 託治를 自願하는 政府를 가지지 안엇고 또 안을것임으로 世界憲章第七七條에 規定된 條件은 한아도 우리에게 適用될수 없다 그럼으로 信託統治를 韓國에 云云하는것은 同憲章에 違反이다

一、大西洋憲章第三項의 原則을 遵守하는 全世界에 잇어 韓國만은「自己가 依據하여 生存할 政府의 形式을 選擇할 權利」가 剝奪되는 理由가 없는것이다 韓國만이「自己의 主權과 自治權이 强制的으로 剝奪된때에 各國人民이 그것을 恢復하야 주지 않겟다는 理由가」없는 것이다。

一、戰敗國인 日本에 對하야서도「포스담」宣言에「言論思想의 自由와 基本的人權을 尊重하여야 할것이라고 하엿다」우리는 聯合國과 協力한 民族임에도 不拘하고 反託黨派에 하야 建國權利를 剝奪하고 오직 贊託者에 限하야 國際的 發言權을 賦與한다면 所謂「民主主義의 槪念과 民族自決의 解釋에 넘우도 無條理한 自由를 使用하는것이다

一、[illegible]年間長期의 沈默協助와 和平을 固守한 韓國民族은 어느 時期에 獨立의 光明을 볼수 잇을가하엿던 것이나 그러나 三八線을 强造하야써 國土를 分裂케 한우에 反託贊託의 對立을 人爲로 造作하야 民族의 精神까지를 再分裂하게 된것은 至極히 憤慨할바이다

韓民黨도 聲明

十三日 韓國民主黨에서 美蘇共同委員會에 關한「하-지」中將의 提示條件을 反對하는 同時에 信託은 自然解消되리라는 別個聲明을 發表하엿다。

共委妨害嚴戒
靑友黨聲明

靑友黨에서는 共委續開의 氣運이 濃厚하여가는 이때 南北統一과 臨時政府樹立을 겁내는 分子들의 陰謀에 依하야 政治的見識이 薄弱한 群衆을 利用하야 公公然하게 共委續開를 妨害하는 言動을 敢行하는것은 斷然容恕할수 없다는 要旨의 聲明을 發表하엿다

共同戰線必要
新進黨談話

新進黨宣傳部에서는 十五日談話를 發表하여 一反託運動과 三相會議全面支持云云하는것은 兩者가 다獨立의 길을 가로막는 自滅行爲이니 各政黨團體는 意見을 一致하고 協力的共同戰線을 取하여 獨立戰取를 圖謀할것이다 各政黨團體가 一致協力한다면 美蘇共委는 續開될것이요 臨政樹立과 同時에 託治問題는 自然消滅될것이다…」라고하엿다

意思發表制限
朝鮮民主黨談

朝鮮民主黨에서는 十五日「信託贊成者만을 協議에 參加시킨다는것은 民族의 意思發表의 自由를 制限하는것으로서 現代民主主義國家의 容許치못할일이다」라는 要旨의 談話를 發表하엿다

十年間의 鬪爭必要
朝鮮靑年黨計畫樹立

朝鮮靑年黨宣傳部에서는 다음과같은 談話를 發表하엿다。朝鮮民族이 國際的으로 完全自主對等하는 政治經濟文化를 建設함에는 向後十年間의 鬪爭期間이 必要하다고 본다 우리黨에서 樹立된 十年鬪爭計劃은 實踐에 옮겨지고 잇다 第一次로 黨의 勢力인 全國靑年은 各種國家機關과 農漁村鑛山工場을 비롯한 廣範圍의 産業職場으로 浸透하야 眞正意味의 建設鬪爭을 通하야 當面한 民生問題解決에 全力하기로 되엿다

記者團에서 立議에 抗議

立法議院에서는 지난十四日本會議에서 記者의 使命達成을 冒瀆한 公公然한 言動이 잇엇어 十五日軍政廳及立議出入記者團에서는 다음과같이 抗議書를 立議議長及秘書長에게 내엿다

一、지난 一月十四日第十一次本會議에서 李秘書長으로부터「新聞記者에게 書類一切을 貸與치 말라!」云云」과 此를 敷衍한 金議長의 態度는 新聞記者의 公的資格을 無視한것이매 이를 取消陳謝할것

一、前記李秘書長말에「公報部外의 말정이 되여잇다는 項目은 事實無根한것이니 李秘書長의 捏造임 以上의 諸事實은 新聞及通信記者에게도 書類印刷物一切를 事前에 配付치 않음에 相關한것인 秘密에 屬한것이 않인限 이를 遺漏없이 出入記者에게도 配付하여줄것

一、本團記者一同은 이미 貴院과 公報部에 登錄되여잇는 만큼 本會議에 出入할때마다 記者의 身體를 搜索함은 記者人格을 侮辱함인즉 卽時廢止할것

一、恒時本記者團活動에 便宜를 積極的으로 供與하도록 連絡機關을 둘일

星票電球

壽命長久 絶對完全

元賣捌 서울市南大門路五街七五 [서울驛前] 南電産業公司 工場 龍山佐川町一六一五

劇團 黃金座 新春大公演 황진이 5幕8場 15日부터 首都劇場

靑草生 脚色 民堂 演出 李驛安 裝置

節妓의悲劇的佳話編

西部大活劇 黃金魔盜 리차-드딕쓰 主演 16日—20日까지 明洞劇場

化粧品部 大昌洋行 서울市忠武路(本町)四街三三番地 電話本局②二四八六

姜秉熙齒科 서울驛前(吉野町入口) 電話本局②八五〇一

金銀細工 各種金屬 裝身具一切 製造元 元昌工業

絶對不變 부인네에第一사랑을받는 구로-무비녀 總販賣店 貿易商 南昌産業 서울市中區南大門路五街八二의一 (세부란쓰病院서南大門편으로셋째집) 電本②四二八〇番 振替京城一五六四五

冷溫麵 반 各種料理 湖宮食堂 大田府本町一丁目(郵便局前) 平壤冷麵專門 主 徐載均

◉技術者募集 旋盤·仕上·木型·코구로 푸레쓰·火造·鑄物·金型 미-링

特機製作 製材·紡績·工作·農機·自轉車 엔진·自動車部品·耗寸捻·精密機械 工具·푸레나·푸레쓰·미-링·코로 子로·金型·加工 電氣熔接·諸機械·工場設計請負·工場能率增進指導 朝光精機製作所 서울市新堂町五二의四 營業部 東子洞二十四 電話② 二五〇九 六九三八

寫眞機及材料高價交換賣買 韓昌洋行 서울市鍾路三街三番地 電話光化門三三三六

師範教育에 難關

生徒給費·敎員俸給財源難으로

의무교육을 막실시하려고있는 오늘에있어서 교육의중심과제는 역시 초등교육에 있다고 볼것이고 이초등교육이 잘되고 못되는것은 초등교원을 길러내는 사범교육이 잘되고 못되는데 지대한관계를 가지고있는데 사범교육에서 곤난한문제는 가정이넉넉한 사람의 자제들은 대개가 일반중학교로 가는경향에 있으므로 사범학교에는 자연히 가난한가정의 생도가오게되는경향이 많은데 이 망자도 극히 적으며 지원으론 재학하는 생도도 지금같이 물가가 비싼 시대에는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형편에 있다 군정청에서는 한생도에게(매달내주는 급비는 一백五십원에 불과하다 지금의물가로는 매달적어도 六백원으로부터一천원의 급비는 주어야될형편이라는것은 관계당국에서도 인정하고있는바로 문교부당국으로서도 사범교육의확충을위하여 많은 고심이있는터이다 결함 직접사범학교교원의 생활문제로보아도 다른중학교에비하여 극히동정할만한상태에있다 즉현재대개의중학교에서는 선생의봉급을 관청이나 재단당국에서 지출하고있는것만으로는 도저히생활을유지해 나갈수없어 학부형회에서 적지안케보조를하고있으나 사범학교는그 학부형이 여유있는 가정이 못되므로 학부형회에 거이상대이란 전혀 바랄수없는 금이므로 사범학교의 교원을확보하는것부터가 문제로 되어있다

市決裁權은再協議

自警隊越權·敵産開放等

金市長과 問答

서울시장 김형민씨는 十五일 출입기자단과맞나 당면문제에 관한질의에 응답하였는데 특히 상공국고문「크로포ー드」씨도 참석하여 기보한바 석유석탄 량곡배급결재권 문제에 관한 답변이있었다

△「크로포ー드」顧問談‖요지음 석유나석탄 량곡등 긴요한물자가핍박상태에 있으니만치 더욱합리적으로 배급할필요가있어 배급상황을 더 자세히 알기위하여 상부의명령으로 이세종목에 한해서는 그결재권과 조선인국장에 대한 부결권을 내가다서가지게되었다 그러나물자가 풍부히드러오게되면 다시조선인상공국장에게결재권을 맛길여지가있다

金市長談‖여하튼이문제는 중요한원측문제인만치「월순」군정관과도 다시타합하여 원만히해결하겠으니 다음회견때의결과발표를 기다려주기바란다

△전재민수용을위하여 제이차로 적산가옥개방에착수하였는데 약두주일이면 구체화할예정이고 개방가옥수효는 먼저번보다많을것이다

△소방(消防)에 관한 사법권 즉발화원인의현장 방화、실화에 관한취체권은 경찰로부터 이관하도록교섭중에있다

△량곡배급소증설에관해서는 그의관할인 식당영단과 협력하여 대책을강구중인데 좋은안이 있으면 알려주기바란다

△소위 자경대(自警團)의 월권행동에대한 취체나 그해산권은 전혀 경찰에 소속된것으로서 비록동회에서조직한경우야라도 시로서는 하등간섭할 성질이못된다

△장작은 一만천평매드러왔고 방금들어오는중에있다

△용산구청에서 구청장층불허비로 각동회에 삼백원식 부담을시켰다는데 부당한말은 초문인데 잘알아보고 사실이라면 적당히대처하겠다

△수도는 어느도중수된것이사실인데 루수가 많어서타격이다 각가정에서좀더주의해주기바라며 원체이문제는 장시일을기다려서 해결해야될것이다

戰災民呼訴들어

市當局은善處하라

앞서 十三적산료정개방이 결국일곱채밖에 실현못된 용두사미의결과로 말미암아 일반이나전재민측에 불만이자자한이때 十五일 아츰열한시경 서울장충단수용소전재동포약백여명은 서울시청으로찾어와 그중대표자십여명은 후생국장과회견하고 엄한추위를 견디기어려운사정이며 수용소간부들의불공평한처사 앞서개방된료정에는 웨 가장조곰한우리들을먼저 수용치않었느냐하는수용진후에대한불만등을호소하는동시에 적산가옥개방을 재촉한바있었다 이에대하여 시청측에서는 호소조건을 선처할것과 방금제이차로 적산가옥개방에착수중임을 언명하여 세시경 일행을 돌려보냈다

仁川港視察記

②

왜?監視를못하나

백알·落花生실코온"장크船"

갖이고가는것은貴金屬?

【仁川서本社特派員朴虎林發】아직정식으로 내외무역이 실시되지않고 있는 이때 인천항에는 지금많은외국「장크」가들어와있다 이「장크」들은 그전부가 거이다 중국(中國)에서 온것이라고하는데 이배들이 싣고오는물자란 임이신문지상을통하여 잘알녀지고있는바이지만 주로배갈(白酒) 고초 락화생 대추등이다 요지음은 수입금지가되였으므로 항내에직접입항치않고 연해각섬에서 역시비밀이 풀고가는예가 많다고하며 지금까지의 총수입량에 대해서는 항무청통계와 실제수입된물자통계와의 상거가 대단이멀니마는 것임으로 구태여기록치 않으나 문제는전승국의 一인 중국의상선들은 대조선무역을비법적이면서도 군정당국의묵인미테 장사를 일반적으로 할수있다는점이다

◇─◇

그나마 순전한 필수품으로만 수입된다면 방척 무역이라도 또 참을수있는 일이지만 물자를 만재하고 들어온 배가 돌아갈때는 빈배로 가는것이 대부분이라고하니 도대체무엇으로서 수지를 마추는가? 국제위채법이 결정되지않은오늘 조선통화를 실고가서그들본국에서물자를구득할리는없는일이라고한다면 남은것은귀금속의밀수출밖에는없을것이라는것은 명약관화한사실이며 또그런실례가 세관의견자로말미아마 역연이나다나고있다고한다 무역관계당로자들이 모를리없는이현상을 웨? 방임해둘필요성을 늦기고있다는말인가? 조선의상선을 이한번도가보지도못했고 또중국에서는 변서부터 조선의인삼과 사과의 자국내수입을거절하고있더 오늘까지 우리행정당국에서는 이「장크」물자의일방적수입을 인정했고 一수입될대로 된뒤에야 비로소 몇중목의수입금지를 언명했으니 이는 사전에 시책에대한 확고한정견과 계획이없었다는것을 폭로하는것밖에는없다

◇─◇

현지에가서들어보라: 업자들의 고충과울분을 남의배들은 자유로우리 항구에들어오나 우리배는 갈래야 갈수없는 이모순된 현실에대한 그들의 개탄을 오늘까지 외무역허가건수는 三백六十여건에 달하나 허가만 내주고 사람과 배가 못나가게하고 또정치적후원도없이 입으로만 무역할수있는가 말이다 우대일(滿洲)무역에있어도 역시그런것이다 이미 부산항 사정에서 소개했거니와 무역이란 언제든지 물자의 교류에 있는것이요 결코 한쪽에서만 물자를 제공하는 무역이라면 이는 정상적 무역행위라고 간조할수는 도저히없는 것이다。

◇─◇

다음으로 연해무역이 다소있으나 일반적으로 활기가없는것은 사실이고 겨우三八선을 중심으로 남북을나드르는 밀항물자와 불완전한 어업으로서 해운게의현상 유지를 나가는형편이다 물논 외국밀선 국내밀선을 감시하기위하여 자 취체기관에서 활약하고 있고 또 인천항무청에서도 二十七개소의 감시소를 연안중요지대에 두고 六十명의 감시원을배치식히고있으나 작년十二월에채용한 그들에게 상무부로부터월급도지불않하고 임명장의교부도없다고하니 그들이어떻게 자기의사명을완수할수있을것인가? 확실치못한무역방침 자각없는형식적감시는 이런게 무계획 무질서 무책임한행정에서 무슨실적이 나타낼수있으랴? 있다면 그야말노 기적적이거나 우연일것이다. 조령모개(朝令暮改)적으로 그때그때에따라 법령을 만들어내고 명령을남발하는 오늘 위행행 태도에있어서 오직괴도 운것은 현지말단기관의 직원들이다 지현지의실정을잘알고있으면서 모고 에자 찮법져을 못하게 미는 그 쉬고민이야말 노 경해넘 이일다

戰災民

警備隊는國防에뿐!

警察과限界에柳部長答辯

통위부장 유동열(柳東悅)씨는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의조직체와 동대원의행동범위에관하야十五일 공보부를통해 다음과같이발표하였다

조선경비대는 국가방위를위한 훈련조직체이지 경찰력을보유하고있는조직체는 않이다 국방경비대원 혹은해원경비대원은 그들의병영과 군대의범위를 이탈할때 혹은 훈련등의군대임무에 복무하지않는때에는 각대원은 일시민의자격으로 모든법령과규정에적용되는것이다 더욱이경비대제복을 입었을때에는 시민이상으로 법령을준수해야된다 각대원이그자체의규률을떠나서 시민의자격으로써 법률을위반할때에는 국립경찰의지배를받게되는것이다

光州殉職警官의慰靈祭

【光州】제八관구경찰청에서는 지난번 영암사건의 연장으로 인하여 희생된 동관내 순직경찰관의 위령제를 오는十七일 오전九시 광주극장에서 집행한다고한다

서울市自動車組合創立總會開催

서울시 자동차조합창립준비위원회(自動車組合創立準備委員會)에서는 오는十八일오후한시부터 시내 조선식산은행회의실에서 창립총회(創立總會)를 연다는바 일반화물자동차업자는 전부참석하기 바란다고했다

南勞黨創立祝賀

大會盛況裡終了

민전(民戰)산하각단체의공동주최와남조선노동당(南勞黨)창립축하대회는 예정대로十五일 오전十一시부터천도교강당(天道敎講堂)에서 문은종(文殷鍾)씨 사회로개회되었다 식순에따라 애국가제창, 해방의노래봉상이있은다음 성주식(成周寔)씨의개회사 유영준(劉英俊)씨의축사와아울러 김남천(金南天)씨의 축하문을낭독하고 이병철(李秉哲)씨의축하시(詩)랑독이 끗나자 남조선노동당위원장 허헌(許憲)씨로부터 축하대회개회에대한 감사에 넘치는답사가있은다음 음악무용연극등다채로운 여흥을드 오후세시경 해산하였다

女子警察署新設을計劃

민주경찰의 시금석으로 등장한녀경관은 아직까지 一반경찰서에 편입되여 남자경관의 보좌격으로 집무함에 지나지않었으나 과거의 실정으로 보아 녀자경관의 자주성을 북도두는한편 녀자경관의 날카로운 신경과 특한 정격을 전적으로 발휘하야 사회에 이바지하고저 수도경찰청에서는 이번새로히「녀자경찰서」를창설 독립시키기로하야 그구체안이 방금 토의중이라한다

在滿同胞萬五千名

派遣團斡旋으로歸國

외무처장 문장욱(文章郁)씨의 十三일발표를보면 작년十二월二十七일 만주(滿洲)에있던 우리동포 二천五백二十四명이 호로도(胡蘆島)로부터 미국배 프란시스브란철호로 인천(仁川)에 도착하였다 조선만주파견단(滿洲派遣團)의 알선으로 귀국한 전재동포는 一만五천명이하이다 이와같이 귀환전재동포의 수가적은것은 그들이 조선으로 돌아와서 겨울을 날준비를 할수없음을알고 그곳에 머물어있기때문이다 재조선미군정이재민철귀위원(美軍政罹災民撤歸委員)이 十二월三일봉천(奉天)에 도착하여 그곳의 조선인들을 허무러진 파라슛트와 방독면(防毒面) 제조공장에 모이도록하였다 여기에는 중국당국으로부터 식당과 스토ㅣ브 및 연료가 지급되어있었다 또 중국당국은 귀환자가 저금통장 보험증서 수표위체 밀철되증명서를 가질것을 허가하였고 만주괴뢰정부및 일본정부에서 발행한채권저금통장 기타의재물

日氣豫報

▲豫報=京仁地方 來日은北東風乃至東風이불고한때는흐리겠다

金龍墨

發賣處 漢城商會

서울市鍾路一街五四

電話⑧1818 振替京城2116

타이피스트生徒募集

一、募集人員 若干名

一、應募資格 國民校卒業程度以上의女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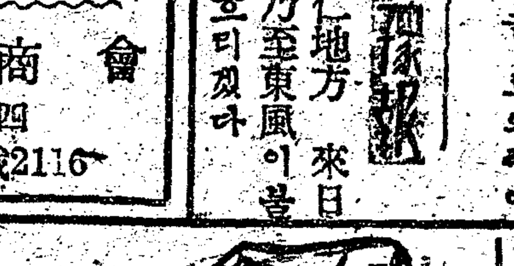
一、敎科目 國語、漢文、簿記、英語

一、期日 一九四七年一月三十日

서울市驛前 朝運빌딩二層內

서울市認可 學術講習會 天和타이피스트學院

電話本局②一〇八一番



紳士靴 學生靴

大田府本町二丁目一六七

信興洋靴店

主 宋秉琯

새해엔 새정신으로

새로운技術 高級人像

西大門寫眞館

電光③四一五二番

鎭川

忠北鎭川邑

大韓獨立促成國民會 鎭川郡支部

委員長 權泰鎬

副委員長 陸任元

副委員長 朴漢英

外役員一同

忠北鎭川邑 鎭川商事株式會社 社長 李揆滿 專務 金友遠 外職員一同

忠北鎭川郡 鎭川面事務所 職員一同 電話五番

忠淸北道 鎭川郡廳 鎭川郡學校費

忠北鎭川邑 朝鮮日報社鎭川支局 支局長 鄭相弼

忠北鎭川邑 鎭川穀物産業組合 理事 徐相[illegible] 外職員一同

忠北鎭川邑 朝鮮農地開發營團 鎭川出張所職員一同

忠北鎭川邑內里 民衆醫院 院長 朴基洙

忠北鎭川邑 鎭川煙草耕作組合 理事 鄭在進 外職員一同

鎭川郵便局職員一同

忠北鎭川邑內里 日出時計店 主 鄭元泳

精米 精麥 製粉 忠北鎭川郡鎭川面邑內里 三光精米所 李鍾玉 李相烈 金永一

忠淸北道 鎭川郡農會 會長 南相翊 外職員一同

鎭川三秀公立國民學校職員一同

鎭川三秀公立國民學校後援會一同

忠北鎭川邑 鎭川常山公立國民學校職員一同

忠北鎭川邑內里 明月館 料理 金東煜 電話一二二番

忠北鎭川邑內里 鎭川醫院 院長 李軒榮 電話三三番